

8.570236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1, 2번
6개의 관현악 가곡 외

잉에 담-젠센(sop)
팔레 크누트센(bar), 말뫼 심포니
비야르테 앙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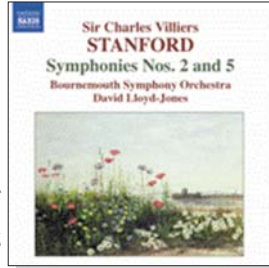
8.570202



바이올린을 위한 오페라 판타지
(비제, 후바이, 파가니니, 랄로,
라프 외)

리비아 손(vn)
벤저민 로베(pf)

8.570289



스탠퍼드:
교향곡 2번, 5번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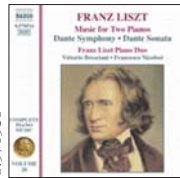
8.570230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1-6번
(관현악버전)

슈타츠크펠레 바이마르
아서 페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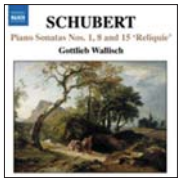
8.570516



리스트:
단테시나타, 단테교향곡
(2대의 피아노 버전)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 듀오
헝가리 방송 어린이합창단

8.570118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1, 8, 15번

고트리프 발리슈(pf)

8.570771



하이든:
교향곡 9, 10, 11, 12번

신포니아 필라디아
패트릭 갈로와

8.559214



록버그:
교향곡 1번

자르브뤼겐 방송교향악단
크리스토퍼 린던-지

8.559291



탐슨:
평원을 일구는쟁기, 강

포스트-클래식 앙상블
앙헬 힐-오르도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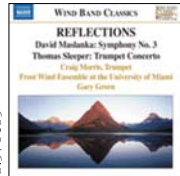
8.570531



아놀드: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외

필리프 다이스, 케빈 사전트(pf)
엘스터 오케스트라
에사 헤이킬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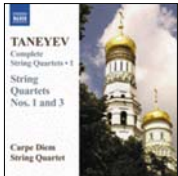
8.570465



슬리파: 트럼펫협주곡
마슬라: 교향곡 3번

크랙 모리스(tp)
마이애미 대학 프로스트 윈드
앙상블
게리 그린

8.570437



타네예프:
현악사중주 1, 3번

카르페 디엠 현악사중주단

8.559348



발컴:
첼로모음곡 1번

노만 피셔(vc)
진 키어맨(pf)
안드레아 무어(timpani)

8.559366



허쉬:
3개의 성격연습곡,
비호크리치, 첼로곡, 실롱 송 외

나타샤 페임스키, 블레어 맥밀렌(pf)
도로서 로슨(vc)
그레머시 트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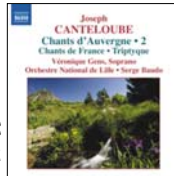
8.559735



빌라-로보스:
피아노작품집 Vol. 6

소나 루빈스키(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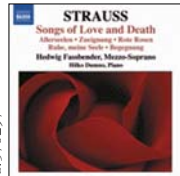
8.570338



칸틀루브:
오베르뉴의 노래 2부,
트립티크, 프랑스의 노래

베로니크 장(sop)
릴 국립 교향악단
세르주 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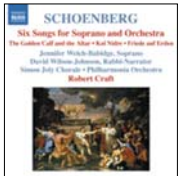
8.570297



R 슈트라우스:
사랑과 죽음의 노래들

헤드비히 파스벤더(ms)
힐코 뎀노(pf)

8.559725



쇼베르크:
합창작품집

제니퍼 벨치-베디지(sop)
시몬 줄리 코랄
필하모니아
로버트 크레프트

8.110999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 헝가리춤

멘델스존: 핑갈의 동굴 외
에후디 매뉴힌(vn)
빈 필하모니아, 루체른 페스티벌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8.111090



안드레아스 세고비아
1950년대 미국 녹음들 vol.2

소르, 줄리아니, 폰스,
슈베르트, 멘델스존, 쇼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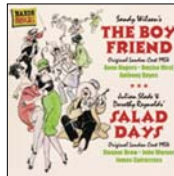
8.111141



로자 폰셀:
아메리칸 레코딩스 vol.4

베르디, 벨리니의 오페라
아리아들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8.120848



보이프렌드 &
샬라드 데이즈

오리지널 런던 캐스팅

8.558184-85



니벨룽의 반지 입문

스티븐 존슨(글 및 낭송)

8.503191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전집

아일랜드 국립교향악단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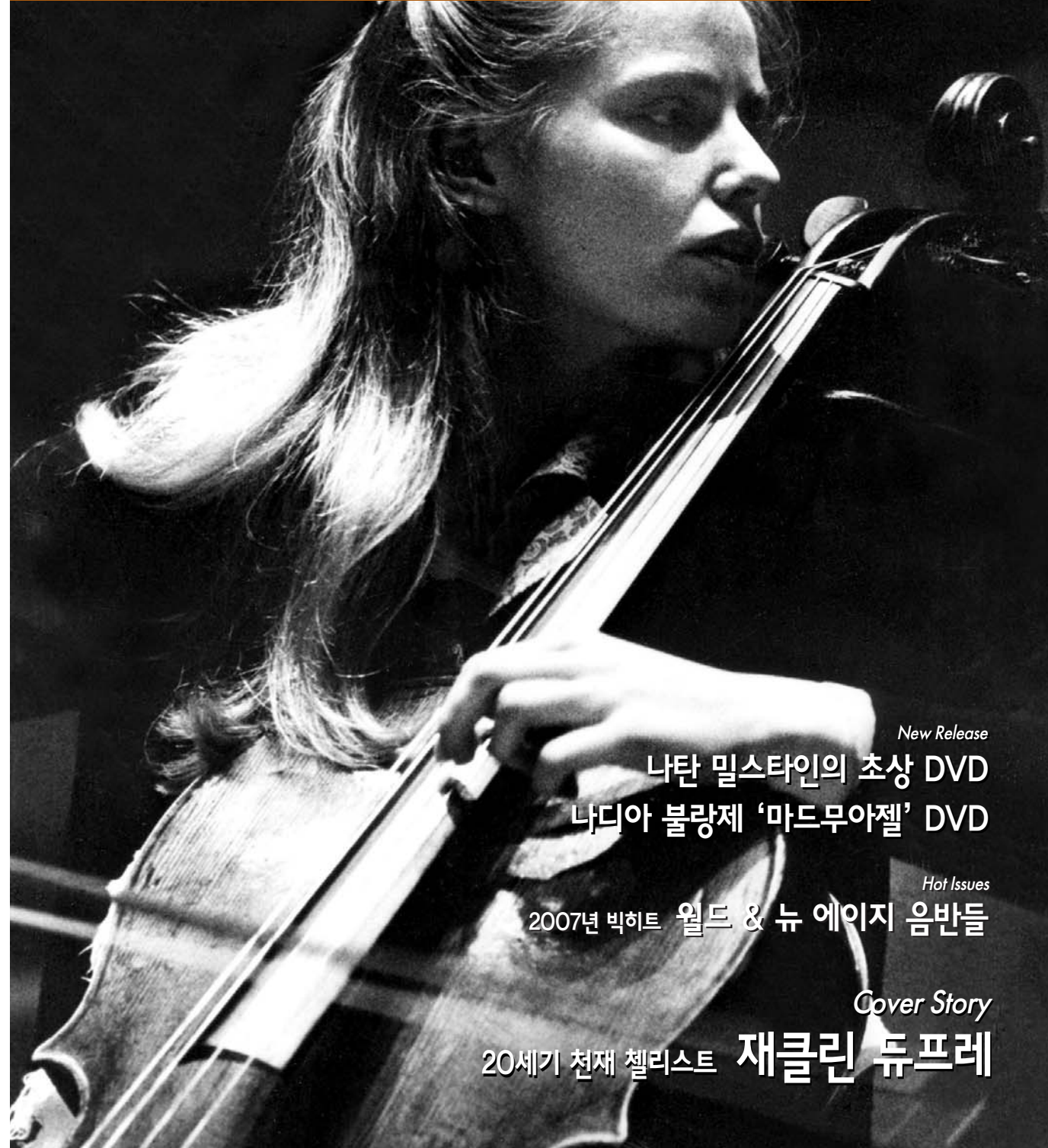
Aulos media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제 28호 | November 2007



New Release

나탄 밀스타인의 초상 DVD
나디아 불랑제 '마드무아젤' DVD

Hot Issues

2007년 빅히트 월드 & 뉴 에이지 음반들

Cover Story

20세기 천재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

20세기 천재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 Jacqueline du Pré

재클린 듀프레는 1945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다. 네 살 되던 해에 듀프레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첼로 소리에 감동을 받아 어머니한테 그 악기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듀프레는 곧 어머니한테 레슨을 받았고, 다섯 살에는 런던 첼로 학교에 입학했다. 이때 이미 듀프레는 몇몇 소품들을 만들어 연주할 정도로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1955년부터 1961년까지 듀프레를 가르친 선생은 윌리엄 플리스(William Pleeth)였다. 1960년에는 스위스에서 파블로 카살스의 마스터클래스에도 참가했고, 1962년에는 파리에서 폴 토르틀리에한테 그리고 1966년에는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한테도 잠깐



배웠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재클린 듀프레의 놀라운 천재성을 발견한 거장들 가운데 최초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듀프레와 함께 공부하는 동안 로스트로포비치는 그녀가 자신의 제자라는 사실에 커다란 긍지를 느끼고 무척 고무되어 있었다고 한다. 후일 로스트로포비치는 젊은 세대의 첼리스트 가운데 자신의 연주와 비견되고 실제로 자신의 연주력을 따라잡은 사람은 듀프레가 유일했노라고 고백했다.

1961년 3월에 듀프레는 런던의 위그모어홀에 공식 데뷔했고, 1962년에는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루돌프 슈바르츠(Rudolf Schwarz)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함으로써 협주곡 데뷔무대도 가졌다. 비평가와 청중의 열띤 찬사를 받자 듀프레는 이듬해에 프롬스에서 맬컴 사전트 경과 함께 다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했다. 프롬스에서는 더 커다란 찬사를 받았다. 듀프레는 그때부터 영국의 유명한 페스티

벌에 1순위로 초빙되는 첼리스트가 되었다.

그녀의 연주, 특히 엘가의 첼로 협주곡에 관한 당시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것이었다. 듀프레는 1965년 EMI에서 존 바비롤리 경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녹음했는데, 그 협주곡 음원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LP시절부터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최고의 명반이 되었다. 물론 그녀의 명성을 단번에 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바로 그 엘가의 첼로 협주곡 음반이었다. 1965년 5월에는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BBC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국 카네기 홀에 데뷔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그녀가 연주했던 곡목도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었다.

중요한 무대, 중요한 단계에서 그녀는 계속 엘가 레퍼토리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불필요해 보이는 듀프레의 엘가 해석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것이어서 후대의 첼리스트가 이 레퍼토리를 다루는데 심한 부담을 주었다.

또 듀프레의 명연주를 생각할 때 브람스 첼로 소나타 역시 손가락에 꼽힌다. 엘가의 녹음만큼이나 유명하고 초절정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그녀의 브람스 첼로소나타 음원은 현재 EMI를 통해 두 가지 음원이 알려져 있는데, 둘 다 1968년 녹음이다. 피아노는 남편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맡았다. 1968년 4월과 6월에 남긴 녹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유명한 것은 역시 1968년 5월 20일과 8월 18일에 런던에서 녹음한 것이다. 바렌보임과 1967년 6월에 결혼했으니 1968년의 그 시점은 듀프레가 한창 신흥의 단꿈에 부풀어 있던 때였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3세, 하지만 도저히 여성의 연주라고 볼 수 없는 남성적인 힘과

대범함, 커다란 스케일, 어눌한 부분이 전혀 없는 완벽한 테크닉,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결한 정신성과 여유 있고 깊은 사색이 정말 20대 초반 예술가의 해석과 연주인지 많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브람스 음악을 여성 연주가 연주하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듀프레의 브람스 연주를 놓고 그런 편견을 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하지만 승승장구하며 탄탄대로를 예약해놓고 있던 천재에게 갑자기 불어 닥친 불행의 씨앗은 손가락 감각을 붙잡는 질병이 가져다주었다. 1971년 그 누구보다도 예민했던 손가락이 감각이 점차 떨어지고 그 증상은 몸 구석구석으로 옮겨갔다. 12월까지 듀프레는 그녀의 마지막 스튜디오 레코딩 앨범이 될 쇼팽과 프랑크의 소나타 녹음을 마쳤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자신의 기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1973년에는 다시 콘서트 활동까지 재개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질병이 안겨주는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다. 1973년 1월 북미 대륙에 연주여행을 떠났던 그녀는 그녀에게 쏟아지는 찬사가 의례적인 것이라는 사실까지 직감하게 된다. 그래도 마지막 힘을 다해 주

빈 메타의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1973년 2월 런던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연주한 곡목도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최후의 런던 콘서트가 되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것은 1973년 2월 뉴욕에서였다. 당시 번스타인 지휘, 주커만의 바이올린과 함께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을 계획했지만, 손가락의 고통에 콘서트는 취소되어야 했다. 1973년 10월에 그녀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10여 년간을 무대와 관련 없이 지내야 했다. 그리고 1987년 10월 19일 불세출의 첼리스트, 어처구니없는 좌절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야 했던 비운의 천재 첼리스트는 42년간 머물렀던 세상을 떠났다. 그녀를 떠나보낸 후 지금까지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자주 돌아다닌다. “요즘에도 듀프레처럼 일찌감치 재능을 보이고 있는 여성 첼리스트들은 많다. 하지만 그 독특한 음악성이나 깊은 정신성에서 그녀만큼 감동을 준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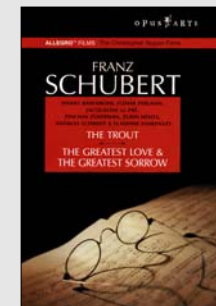
재클린 듀프레 영상물의 결정판



처음 공개되는 영상 포함
재클린 듀프레 다큐의 결정판
[음악다큐의 거장 크리스토퍼 누넌 제작]
재클린 듀프레의 삶과 음악세계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음악다큐멘터리. 지금까지 나온 듀프레의 영상물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아이템이다. 듀프레의 절친한 친구였던 필만, 주커만, 바렌보임, 메타를 포함, 피셔-디스카우, 아쉬케나지, 후츨 등 20여명이 그녀의 삶과 위대한 예술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 귀중한 영상물 BBC가 또 한번 놀라게 한다!
영국의 전설적인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의 생생한 영상물.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라면 그녀의 전설적인 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애호가도 없을 것이다. 그녀의 남편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 또 하나 베토벤 피아노 3중주 5번 <유령>도 연주한다.



재클린 듀프레와 함께한 슈베르트 피아노 오중주 [송어]
다니엘 바렌보임, 이차크 펠만, 재클린 듀프레, 핀커스주커만, 주빈 메타.. 다섯 사람이 모여 연주한 슈베르트의 송어 오중주. 보고 또 봐도 감동이 가시지 않는 이 영상물은 LD시대에 이미 접해 본 애호가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DVD에는 슈베르트의 삶과 예술에 대해 일목요연한 설명을 해주는 미니 슈베르트 전기 <위대한 사랑, 커다란 슬픔>까지 담았다. 감히 우리나라 음악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할만한 영상물이라고 단언한다.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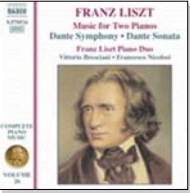


Naxos 8.570236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1, 2번, 6개의 관현악 가곡 외

잉예 담-옌센(sop) / 팔레 크누트센(bar)
말뫼 심포니 / 비아르테 앙예세트

입센의 희곡 '페르귄트'를 위해 그리그가 작곡한 극부수음악은 작곡가의 대표걸작이자, 노르웨이 민족주의 음악의 정수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전곡에서 발췌한 두 편의 모음곡과 더불어 작곡가가 관현악반주로 남긴 가곡들을 수록하였다. 유명한 솔베이그의 노래를 관현악버전과 가곡버전으로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그리그가 남긴 가장 큰 규모의 가곡인 '산도께비'(Den Bergtekne)도 수록되었다.



Naxos 8.570516

리스트: 단테소나타, 단테교향곡 (2대의 피아노 버전)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 듀오, 헝가리 방송 어린이합창단

낙소스의 리스트 피아노작품 전집의 26번째 음반. 단테를 타이틀로 한 두 작품을 담았다. <순례의 해>의 2년차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중 마지막 곡인 '단테소나타'를 비토리오 브레스치아니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버전과, 작곡가 본인이 역시 두 대의 피아노와 합창단을 위해 편곡한 단테교향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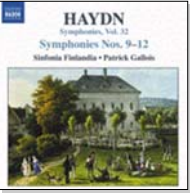


Naxos 8.570118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1, 8, 15번

고트리프 발리슈(pf)

1815년에서 23년 사이 슈베르트가 미완성으로 남겼거나 단편적으로만 작곡했던 소나타들을 수록한 두번째 음반. 토르소에 불과하지만 작곡가의 창조적인 영감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본 음반은 작곡가의 첫 소나타에서 시작하여 중기에 남긴 3편의 미완성 소나타를 거쳐 마지막 미완성 소나타(15번)으로 마무리된다. 전작(8.557189)에 이어서 빈 출신의 신성 고트리프 발리슈가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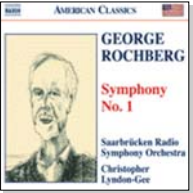


Naxos 8.557771

하이든: 교향곡 9, 10, 11, 12번

신포니아 핀란디아 / 패트릭 갈로와

본 음반에 수록된 4편의 교향곡은 하이든의 극초기 작품들에 속하지만, 이때부터 그는 능숙한 음악가의 재능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미뉴엣과 트리오로 마무리되는 교향곡 9번은 서곡에 보다 가까운 3악장 구성의 작품이다. 10번과 12번 역시 이와 비슷한 외형을 갖춘 반면, 교향곡 10번은 보다 예스러운 교회소나타의 외형을 보여주는 점이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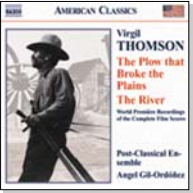


Naxos 8.559214

록버그: 교향곡 1번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 크리스토퍼 린던-지

현대 교향곡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록버그의 교향곡 1번은 각각의 악장이 단편적으로 연주 및 녹음된 적은 있으나, 다섯 악장이 완결된 형태로는 이번이 최초의 녹음이다. 젊은 작곡가의 열기와 도전 정신을 가득 담은 작품으로 특히 카프리치오 악장은 은사 레오폴드 만이 '이제까지 내가 들어온 음악들 중 가장 미친듯한 작품'이라고 평했을 정도다.



Naxos 8.559291

탐슨: 평원을 일구는쟁기, 강

포스트-클래시컬 앙상블 / 앙헬 할-오르도네스

평원을 일구는쟁기'와 '강'은 미국 기록영화의 거장 페어 로렌츠의 두 대표작이다. 20세기 미국 작곡계의 거장 버질 톰슨이 이 작품들의 음악을 맡았다. 톰슨은 프랑스 6인조와 에릭 사티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명료한 표현력과 유머를 특징으로 한다. 톰슨은 미국 민요를 핵심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두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충실히 청각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었다. 이들 작품은 영상물(2.110521)로도 출시되었다.



Naxos 8.570531

아놀드: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외

필리브 다이슨, 케빈 사ージェント(pf) / 얼스터 오케스트라 / 예사 헤이킬레

1951년에 작곡된 피아노 듀엣과 현을 위한 협주곡은 과시적인 기교와 훌륭한 선율, 화려한 색채감이 결합된 아놀드의 대표적인 협주곡이다. 두 대(3 손)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은 전설적인 세 손의 듀오였던 셀릭과 스미스 부부를 위해 완성한 작품으로 흥겨운 롬바와 로맨틱한 선율이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녹턴의 창시자였던 존 필드의 선율에 기초한 협주곡 풍의 환상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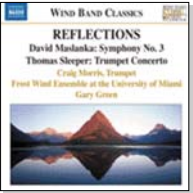


Naxos 8.570202

바이올린을 위한 오페라 판타지 (비제, 후바이, 파가니니, 람로, 라프 외)

리비아 손(vn) / 벤저민 로엠피(pf)

1989년 에후디 메뉴인 쿤쿠르 우승자인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 리비아 손의 오페라 판타지. 후바이의 카르멘 판타지, 라프의 로엔그린 주제의 이중주, 프루츠만의 장미의 기사 주제의 판타지, 파가니니의 탄크레디 변주곡 등을 수록하였으며, 비제의 <진주조개잡이> 중 '신성한 사원에서'는 바이올린과 비올라 이중주로 원곡의 묘미를 충실히 재현하였다.



Naxos 8.570465

슬리퍼: 트럼펫협주곡, 마슬란카: 교향곡 3번

크렉 모리스(tp) / 마이애미 대학 프로스트 윈드 앙상블 / 게리 그린

토마스 슬리퍼는 지휘자 겸 작곡가로 활동 중인 인물로, 그의 트럼펫협주곡은 본 음반에서 독주를 맡은 크렉 모리스를 위해 완성한 곡이다. 풍부한 서정성을 자랑으로 하는 작곡가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데이비드 마슬란카의 교향곡 3번은 뉴욕의 도심에서 떠나 로키산맥에 터를 잡은 작곡가 자신의 소회를 표현한 작품으로 야생동물과 인디안들의 영혼이 깃든 서부의 이미지를 담았다.



Naxos 8.570188

잘터 & 데사우: 프랑켄슈타인의 집

모스크바 심포니 / 윌리엄 스트롬버그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야기는 가장 고전적인 SF호러 이야기소재였다. <프랑켄슈타인의 집>은 1944년에 출시된 영화다. 음악은 독일 작곡가 파울 데사우가 잠시 헐리우드에서 외도했던 시절에 완성한 작품으로, <늑대인간> 등의 공포영화의 음악으로 유명한 한스 살터와 공동작업을 거쳐 완성한 것들이다. 당시 유니버설영화사의 시그네ച്ച어테마 역시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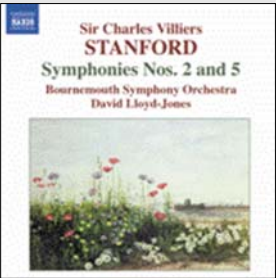


Naxos 8.570437

타네예프: 현악사중주 1, 3번

카르페 디엠 현악사중주단

타네예프는 차이코프스키의 제자이자 그의 후임으로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편을 잡았던 인물이다. 스크랴빈과 라흐마니노프가 그의 제자들이다. 4개의 교향곡과 다수의 실내악 작품을 남겼으며, 특히 그의 현악사중주들은 아름다운 선율과 정교한 작곡기교와 어우러진 수작들이다. 우아한 느린 악장들이 일품인 1번과 주제와 변주로 구성된 마지막 악장이 이채로운 3번 현악사중주를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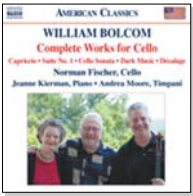


Naxos 8.570289

스탠퍼드: 교향곡 2번, 5번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스탠포드는 엘가 직전에 활약했던 가장 중요한 영국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그가 남긴 7곡의 교향곡은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의 영향이 짙게 느껴질 정도로 보수적인 악풍을 고수하였다. 본 음반에 수록된 두 교향곡은 모두 문학작품들에 기초한 작품들이다. 'Elegiac'이라는 부제가 붙은 2번은 테니슨의 <In Memoriam>에서, 교향곡 5번은 밀튼의 시 <L' Allegro ed il Penderoso>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Naxos 8.559348

발컴: 첼로모음곡 1번, 카프리치오, 첼로소나타 외

노만 피셔(vc) / 진 키어맨(pf) / 안드레아 무어(timpani)

윌리엄 발컴은 미국의 현존작곡가들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본 음반에는 첼로를 위해 지금까지 그가 완성한 작품 전곡이 수록되었다. 미요와 브람스 그리고 브라질 땡고 작곡가 나자레트의 영향을 접목한 소나타 형식의 카프리치오, 일종의 바흐 오마주인 첼로모음곡 1번, 전통적인 소나타 외형에 낭만작곡가들의 그림자를 담은 첼로소나타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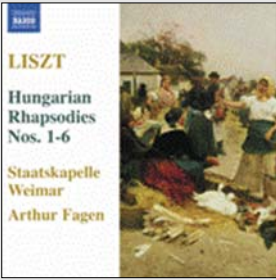


Naxos 8.559366

허쉬: 3개의 성격연습곡, 바흐코랄 변주곡, 살롱 송 외

나타샤 페임스키, 블레어 맥밀런(pf) / 도로시 로슨(vc) / 그레머시 트리오

프레드 허쉬(1955년생)는 재즈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이름이다. 지금까지 솔로와 밴드 리더로 25여편의 음반을 선보였고, 그 중 둘은 그래미 베스트 재즈 연주곡 후보작에 올랐다. 본 음반에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완성된 콘서트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바흐 코랄에 의한 24개의 변주곡, 진한 낭만성을 담은 트리오를 위한 서정소품, 왼손을 위한 녹턴 등 재즈, 뉴에이지, 클래식의 특징을 공유한 작품들이 이어진다.



Naxos 8.570230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1-6번 (관현악버전)

슈타츠카펠레 바이마르 / 아서 페이건

15곡의 헝가리 랩소디는 리스트가 모국 헝가리의 민족음악적인 특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해낸 작품들이다. 이중 인기가 높았던 6곡은 나중에 작곡가 자신과 명 플루티스트였던 도플러의 손으로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었다. 특히 2번은 리스트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리스트가 만년에 직접 지휘하기도 했던 악단인 슈타츠카펠레 바이마르가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735

빌라-로보스: 피아노작품집 Vol.6

소냐 루빈스키(pf)

그라모폰을 비롯한 유수의 전문지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는 루빈스키의 빌라로보스 시리즈의 여섯 번째 음반이 출시되었다. 빌라로보스의 피아노 작품은 어린이들의 놀이, 브라질 전통음악, 아방가르드 테크닉, 비음악적인 요소 등등의 다양한 소재를 음악으로 표현해내었다. 작곡가의 가장 중요한 피아노독주곡인 'The Rudepoema'가 수록되었으며, '광대의 카니발'과 '멜로디아 다 몬탄하'는 최초로 녹음되는 곡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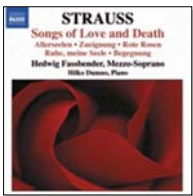


Naxos 8.570338

칸틀루브: 오베르뉴의 노래 2부, 트립티크, 프랑스의 노래

베로니크 장(sop) / 릴 국립 교향악단 / 세르쥬 보도

프랑스 중남부 산악지대의 민요를 세련되게 편곡했던 '오베르뉴의 노래'는 칸틀루브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었다. 이미 큰 호평을 받았던 1집(8.557491)에 이어 이 지역 출신의 정상급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의 두 번째 오베르뉴의 노래 선곡집이 등장하였다. 음반으로 만나기 쉽지않은 작곡가의 다른 두 작품(프랑스의 노래, 트립티크)가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70297

R 슈트라우스: 사랑과 죽음의 노래들

헤드비히 파스벤더(ms) / 힐코 뎀노(pf)

리트는 관현악곡, 오페라와 더불어 R 슈트라우스의 가장 핵심적인 음악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생에 걸쳐 독일 낭만전통에 충실한 가곡들을 200여편 작곡하였다. 그가 남긴 여러 사랑 노래들은 자신의 부인을 위해 완성한 것들로, 이를 통해 작곡가의 감성적인 면모를 살펴보게 된다. 인기가곡인 '현정', '위령의 날', '잠잠하라 나의 영혼' 등을 수록.



Naxos 8.557525

쇤베르크: 합창작품집

제니퍼 벨치-베디지(sop) / 시몬 줄리 코랄 / 필하모니아 / 로버트 크래프트

로버트 크래프트의 쇤베르크 에디션의 7번째 작품. 바그너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초기작인 소프라노와 관현악을 위한 6개의 노래로 시작된다. 남성합창을 위한 6개의 소품은 폴리포니 구성의 묘미를 보여주는 작품. 랍비 낭송과 혼성합창을 위한 'Kol Nidre'는 유대인으로서의 작곡가의 자아를 확연히 드러내는 작품이다. 미완성 걸작 오페라 <모세와 아론> 중의 금송아지와 제단 장면으로 음반이 마무리된다.

www.naxos.com

Naxos Histor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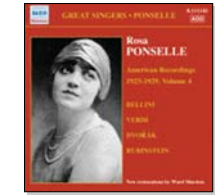
Naxos 8.110999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 헝가리춤곡 / 멘델스존: 핑갈의 동굴 외
에후디 메뉴힌(vn) / 빈 필하모니, 루체르 페스티벌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푸르트벵글러가 1949년에 남긴 다양한 녹음들을 모았다. 먼저 메뉴힌을 반주한 브람스의 바이올린협주곡은 그 해 8월 28일부터 31일에 걸쳐 스위스에서 녹음된 것이며,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과 바그너의 '지크프리트의 자장가'는 2월 빈의 무직페라인에서 녹음된 것이다. 브람스의 헝가리춤곡 1,2,3,번은 4월 4일 역시 무지크페라인에서 남긴 녹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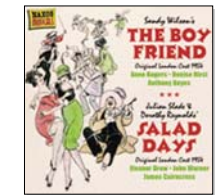
Naxos 8.111090

안드레아스 세고비아 1950년대 미국 녹음들 vol.2
소르, 줄리아니, 폰스, 슈베르트, 멘델스존, 쇼팽
낙소스 세고비아 에디션의 4번째 음반으로 1950년대 거장이 미국에서 남긴 음원들을 담은 두번째 음반이다. 위대한 기타 작곡가들인 소르와 줄리아니의 오리지널 기타곡 외에도,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D894의 미뉴엣, 멘델스존 무언가 중 베니스 곤돌라 노래, 쇼팽 전주곡 op.28-1 등이 기타를 위해 편곡 연주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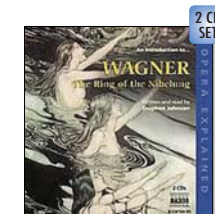
Naxos 8.111141

로자 폰셀 아메리칸 레코딩스 vol.4
베르디, 벨리니의 오페라 아리아들 / 드보르작: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칼라스가 '최고의 가수'라고 존경했던 미국 소프라노 로자 폰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라마틱 소프라노로 기억된다. 본 음반에는 그가 장기로 남겼던 베르디와 벨리니의 아리아들을 수록하였다. <노르마> 중의 '정결한 여신여', <아이다> 중의 '이기고 돌아오라', <일트르바트레> 중의 '미제레레', <운명의 힘> 중의 '주여 평화를 주소서' 외에도 드보르작의 유명한 가곡 '어머니께서 가르쳐 준 노래' 역시 만날 수 있다.



Naxos 8.120848

보이프렌드 & 샐러드 데이즈
오리지널 런던 캐스트
1950년대 영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뮤지컬의 고전 두 편을 당시 오리지널 캐스트 레코딩으로 만난다. 샌디 월슨이 음악을 맡았던 <The Boy Friend>는 줄리 앤드류스를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시켰던 작품으로 유명하다. 줄리언 슬레이드가 음악을 맡았던 <Salad Days> 당시 화려하게 꽃피웠던 영국 뮤지컬의 정수를 보여주는 추억의 명작이다.



Naxos 8.558184-85

니벨룽의 반지 입문
스티븐 존슨(글 및 낭송)
바그너의 오페라 4부작 <니벨룽의 반지>는 독일과 북유럽의 신화를 토대로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웅대한 규모의 음악작품이다. 이 거작에 대한 보다 손쉬운 접근을 위해 음악 킬러니스트 스티븐 존슨이 유용한 입문 음반을 마련하였다. 존슨의 명확한 영국 억양과 액센트는 히어링 연습용으로도 유용할 것이다.



Naxos 8.503191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전집
아일랜드 국립교향악단 /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부산시향의 수석지휘자를 맡음으로써 국내 애호가들에게도 낯익은 이름인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그가 아일랜드 국립교향악단과 함께 완성했던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전집이 박스세트로 새옷을 갈아입었다. 3편의 교향곡 외에도 보헤미안 카프리스, 환상소곡 중 melodie와 polichinelle의 관현악 버전을 함께 담았다.

www.naxos.com

Marco Polo



Naxos 8.225316

슈포어: 현악사중주 33번, 35번 포프리 1번
모스크바 다마 현악사중주단
루이스 슈포어는 당대의 걸출한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였으며, 특히 실내악 분야에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두 현악사중주는 최초 레코딩되는 것들로, 이중 33번의 아디자오 악장은 작곡가가 남긴 작품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느린 악장의 하나이다. 35번은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시대로 회귀한 듯한 고전적인 스타일의 작품이다.

www.canaryclassics.com

CANARY CLASSICS

CANARY CLASSICS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길 사함이 2004년에 설립한 독립 레이블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사함이 이제 자신의 레이블을 통해 보다 원숙하고도 도전적인 음악세계를 화려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CC 03

포레: 바이올린소나타 1번, 피아노트리오, 바이올린소품들
길 사함(vn) / 브린틴 스미스(vc) / 아키라 에구치(pf)
포레의 소나타 1번은 프랑크의 소나타와 더불어 근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린소나타로 손꼽힌다. 포레 특유의 우아한 서정성이 한껏 드러나는 작품으로 사함의 유려한 연주와 좋은 궁합을 보이는 작품이다. 작곡가의 또 다른 주요 실내악인 피아노 트리오가 함께 수록되었으며, 가곡 '꿈꾸고 난 뒤'와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중 시실리안느, 로망스와 같은 인기선율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



CC 04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 첸 & 헤: Butterfly Lovers
길 사함(vn) / 싱가포르 심포니 / 란 슈치
강 첸과 잔하오 헤의 공동 작품인 바이올린협주곡 'Butterfly Lovers'는 중국 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연애설화를 중국 전통음악의 선율을 빌려서 표현한 작품이다. 사함의 매끄러운 톤은 이 곡의 농익은 서정성을 한껏 아름답게 드러낸다. 함께 수록된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은 과거 시노폴리와 협연에 비해 한결 여유로워진 흐름이 인상적이다.



www.kkv.no

KKV(Kirkelig Kulturverksted)



www.kkv.no

온 지멘 어벨리가 노래하는 알프 프로이센
연주: 기타 & 노래 (온 지멘 어벨리)
노르웨이 중요한 현대 예술가의 작품
러시아의 음유시인 브이쇼츠키의 음악을 힘차게 노래했고, 1900년대 중반 독일 음유시가를 해석한 음반까지 내놓았던 아티스트 온 지멘 어벨리의 새음반. 이 음반에서는 노르웨이의 작가이며 음악가인 알프 프로이센의 작품을 노래했다. 알프 프로이센은 20세기 후반 노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아이콘 중의 하나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의 삶과 평탄치 못한 인생행로를 풍자적으로 노래한 일종의 음유시가들이 이어진다.

FXCD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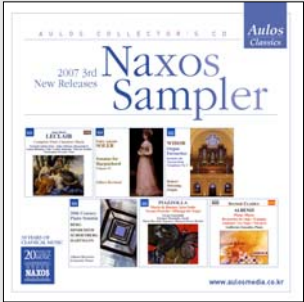


www.kkv.no

페르시아 정원의 노래
연주: 마흐사 & 마리안 바흐다트
매혹적인 옛 이란의 노래들
페르시아 즉 이란의 음악을 노래한 음반이다. 전통 페르시아 민요를 포함해 13세기, 14세기 옛 이란의 노래들이 대부분이다. 두 명의 이란 여가수가 잔잔하면서도 아시아 남서부의 독특한 이국적 취미로 가득한 노래들을 풀어놓는데, 즐거움을 위해 세상 모두를 버렸다는 '미나(와인 잔)'라는 곡부터, '나와 함께 가지 말아요', '천국의 정원에 핀 꽃', '롤립' 등 서구의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동양정서가 귀와 마음을 매혹시킨다. 예쁜 재킷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노래들이다.

FXCD 320

낙소스 샘플러 정기 발매 2007 3rd New Releases



www.aulosmedia.co.kr

2007 3rd New Releases

Naxos Sampler

01. 8.570508 3:30 Domenico Cimarosa: Overture from 'Le stravaganze del conte'	11. 8.570401 3:29 Arnold Schoenberg: Andantino from 3 Klavierstücke
02. 8.570026 2:58 Joaquin Turina: Prelude et Fuque from Nineries Op.21	12. 8.570446 5:46 Johann Sebastian Bach: 4th mov. from Sonata No.2 BWV1003
03. 8.570259 3:08 Ernest Bloch: Allegro comodo from Concertino	13. 8.570523 3:54 Astor Piazzolla: Oblivion
04. 8.554797 3:34 Franz Schubert: Frühlingsglaube D.686	14. 8.570553 3:44 Isaac Albeniz: Puerta de tierra from 'Recuerdos de viaje'
05. 8.570310 3:26 Charles-Marie Widor: Sicilienne from Bach's Memento	15. 8.570456 3:22 Robert Schumann: Der traurige Jaeger from Romanze & Balladen Op.75
06. 8.570351 3:06 Sir Arthur Sullivan: Captain Belaye's Solo from 'Pineapple Poll'	16. 8.557498 2:21 Joseph Martin Kraus: Tempi di marcia from Pantoime in G
07. 8.570292 5:49 Padre Antonio Soler: Sonata in G major: Cantabile	17. 8.570510 2:33 Alberto Ginastera: Finale from Sonata Op.47
08. 8.570416 3:16 Sir Charles Willers Stanford: Andante espressivo from 3 Intermezzi for Clarinet & Piano	18. 8.570190 3:03 Miklos Rozsa: Allegro giusto from North Hungarian Peasnat Songs & Dances
09. 8.570233 5:57 Johannes Brahms: 3rd mov. Allegro giocoso from Symphony No.3 Op.98	19. 8.570340 3:25 William Alwyn: 2nd mov. from Sonatina for Violin & Piano
10. 8.557440-41 2:03 Jean-Marie Leclair: Gavotta from Sonata in G major Op.2-5	20. 8.570293 5:31 Richard Wagner: Liebestod from 'Tristan und Isolde' (arr. by Stokowski)

아울로스의 2007년 빅 히트 월드 & 뉴 에이지 명반들

친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올해에도 아울로스 미디어의 이름을 드높인 월드 뮤직과 뉴 에이지 음악들을 다시 기억해본다.
매년 월드 뮤직 분야에서 각 음반 매장 베스트셀러 자리를 오랫동안 점유해온 '세상의 모든 음악'을 비롯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수 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한 러시아 로망스 음반들,
또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감동을 주는 뉴 에이지 음반들은 어떤가?
마이클 호페, 로빈 윌리엄스, 자넷 알렉산더, 필 콜터, 진 레드퍼스, 데이비드 렌즈, 수사네 룬딩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꺼내 들어보고, 없는 사람은 빨리 구입하자.

월드 World



www.aulosmedia.co.kr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 음악을 들으러 숲으로 가다
KBS FM <세상의 모든 음악> 제작팀이 엄선한 16편의 주옥같은 서정시
세상의 모든 음악들을 만나기 위해 숲으로 간다. 부드러운 미풍에 간지럼 타는 연못가의 햇살, 노을에 붉게 물드는 외로운 저녁바다, 푸른 산 위에 떠오르는 창백한 달,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음악이다. 그런 음악들이 그리워 우리는 숲으로 간다. 순결한 천사들의 합창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요?), 이국에서 느끼는 야릇한 향수와 설움(마리아), 숨이 멎을 정도로 황홀한 사랑의 눈빛(그대는 나를 놀라게 합니다)등... 새들의 지저귐에 눈뜬 청명한 가을 아침엔, 이런 음악들이 그리워 견딜 수 없다.

AMC2-014



www.aulosmedia.co.kr

[세상의 모든 음악 2집] – PM 6:00...침
KBS FM <세상의 모든 음악> 제작팀이 엄선한 16편의 주옥같은 서정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김미숙입니다' DJ의 한마디로 저녁 여섯시를 맞이하는 청취자들에게...
진심으로 그 정성에, 사랑에 감사 드린다. 그 소박하고 따스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저녁여섯시의 소우주를 선물한다. 언제, 어디서나 '저녁 여섯시'의 '침'이 함께하기를...

AMC2-047



www.aulosmedia.co.kr

[세상의 모든 음악 3집] – 저녁, 길모퉁이 카페...
따뜻한 세상을 향한 공감과 소통의 음악
KBS 1FM의 월드뮤직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음악'은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로와 평화의 음악을 제공한다. 언어와 민족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음악으로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음악 3집'에는 첫 곡인 <Nella Fantasia>에서 마지막 곡인 <Take me home>까지, 이 한장의 음반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처럼 기승전결을 갖는다. 위로와 휴식과 평화에 이르는 공감과 소통, 그것을 위해 제작진은 최선을 다한 음반을 선보인다는 자부심으로 3집을 세상에 내어 놓는다.

AMC2-062



www.aulosmedia.co.kr

[세상의 모든 음악 4집] – 그대, 황혼이면 돌아오듯이...
저녁의 정서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한 그루 든든한 나무가 되어 노을처럼 다양하고, 산 속의 불빛처럼 위로가 되는 음악으로 황혼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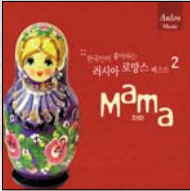
AMC2-062



AMC2-014

한국인이 좋아하는 러시아 로망스 베스트 - [백만송이 장미]

〈모래시계〉의 백학, 〈사랑을 위하여〉의 고백, 〈백만송이 장미〉의 원곡 브이쇼츠키의 아생마,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폐회식 노래 모스크바여 안녕히! 등 한국인들이 애청해왔던 바로 그 러시아 노래들을 국내 최초로 한 음반에 담았다. -전 수록곡(오리지널 녹음!!!)-



AMC2-045

한국인이 좋아하는 러시아 로망스 베스트 2 - [마마(mama)]

2003-4년 베스트 셀러, 백만송이 장미에 이은 또 한 편의 아름다운 러시아 로망스! 알수의 〈겨울꿈〉, 아니타 최의 〈마마(엄마)〉, 발레리아의 '어린왕자' 등 구소련 이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현대 로망스와 발라드를 엄선해 모았으며, 또한 보너스트랙으로 윤도현 밴드가 번안해 불렀던 빅토르 최의 〈혈액형〉을 함께 수록했다. 어머니 품 같이 포근하고 아름다운 노래들이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줄 것이다. -강력추천곡 : 겨울 꿈, 마마, 어린왕자, 우리는 왜 서로를 너라고 불렀는지



AMC2-074

한국인이 좋아하는 러시아 로망스 베스트 3 - [트로이카]

꿈어질 듯 꿀어질 듯 예상을 뛰어 넘는 길고 긴 고음, 러시아 음악 매니아의 우상 알라 소렌코바의 〈불가강〉 드디어 공개!! 그녀의 애절한 고음이 언제 멈추는지 확인하라. - 이 한장의 명반 저자, 안 동림 교수 -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월드뮤직 최고의 전문가 서남준 선생의 글을 서문으로 러시아 음악 전문가들이 극찬한 안나 게르만의 〈스텐카 라진〉, 러시아 국민 성악가 이반 페트로프가 부르는 타이틀 곡 〈트로이카〉, 잔나 비첵스카야의 〈속요〉, 안나 리트비넨코가 부르는 〈집은 자주빛 숲〉등 이 겨울에 어울리는 주옥같은 러시아 레퍼토리들로 가득하다.



AMC2-067

떠돌이별 임의진의 [기차여행 by Train]

〈여행자의 노래〉로 독특한 월드뮤직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시인, 수필가, 집시 가수 임의진 발췌 특급열차! 기차, 비행기, 배, 버스 여행 4가지 여행담의 제1탄! 세계 곳곳에서 그러모은 희귀곡들과 이국의 기차에서 아껴들은 노래들, 김두수의 신곡 〈돌아오라 소렌토로〉, 박남준 시인의 시낭송, 곱창전골의 리더인 사토 유키에의 〈마지막 기차〉, 북한 여가수 이선주와 에디 리더가 함께 노래한 초희귀 음원 〈자장가-별〉, 쿠바의 음유시인 사라 곤잘레스의 절창 〈내게 드리운 손길〉, 임의진의 목청으로 듣는 김광석의 명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 18편의 저릿저릿한 글들, 사진작가 김홍희의 제킷 사진까지 여기에 세계 기차여행의 모든 준비물, 모든 노선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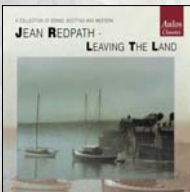


TWCD-014

떠돌이별 임의진의 [여행자의 노래 4집]

기대했던 그 바람 그대로, [여행자의 노래 4] 드디어 발매!

시인이며 수필가, 그럼도 그리는 [임의진]은 독특한 아티스트! 그가 즐겨듣는 노래와 생각을 공유하는 일은 반갑고 달콤한 일! 차오르는 눈물로 익사할 만큼 구슬픈 노래들과 지난한 여정에 닳은 방랑자의 신발 같은 노래들, 그리고 적절한 유량의 기록! 4집 발매를 기려 한국 포크록의 전설 [김두수]는 세계인의 민요 〈클레멘타인〉을 새로 녹음했다. 선댄스 영화제가 낳은 배우이자 음유시인 글랜 헨사드의 숨은 절창, 쿠반 싱어 헤비아의 〈봄 나비〉, 아르메니아의 절절한 자장가, 재즈 싱어 사라 K.의 창백한 탄식... 진정성과 예술성의 추구, 인디 비주류 음원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행자의 노래 시리즈만의 독창성이다. 부를것을 수놓고 있는 사진작가 [김홍희]의 〈몽골 기행〉은 소장 가치를 배나 높인다.



AMC2-064

[진 레드파스] - Leaving the Land

스코틀랜드 노래 및 서양의 애창곡 모음

“옛날의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가슴 저리게 하는 추억의 노래 〈매기의 추억〉 수록. 위대한 시인 로버트 번즈에 비견되는 스코틀랜드의 국민적 가수 진 레드파스의 유명한 앨범 〈Leaving the Land〉의 라이선스 앨범. 뉴욕 타임즈는 레드파스를 극찬하며 “스코틀랜드 전통노래를 그녀보다 아름답게 부르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었다.



AMC2-082

The Singing Nun(노래하는 수녀) - Soeur Sourire(수에르 수리르)

노래 잘 하던 한 수녀의 가슴 아픈 사연 담긴 베스트셀러. 70년대 번안가요로 큰 인기를 얻었던 타이틀곡 〈도미니크〉 앨범이 프레슬리의 인기를 위협할 정도로 베스트셀러였던 그 음반. - 국내 최초 정식 앨범으로 발매 - 방송에 나오면 문의가 쇄도했던 노래들, 하지만 정작 구할 수는 없었던 음반. - 4곡이 보너스 트랙으로 추가 - 노래만큼이나 아름다운 제킷, 프랑스어 가사와 한글 번역 포함. - 수녀의 생활모습을 그린 여러 스케치들 -



AMC2-086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의 주인공 - [수사네 룬덴]

베스트 컬렉션 'Jeg ser deg søte lam'

한 번만 들으면 온 마음을 뺏기게 되는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으로 국내에서만 1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던 노르웨이 바이올린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수사네 룬덴.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 〈여기 모인 옛 친구들〉 〈워딩엔의 결혼행진곡〉 〈이상한 여행〉 〈킬라 로마 바네〉... 피오르드 협곡, 눈이 시리도록 질푸른 바다와 백야의 나라, 노르웨이의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스런 연주곡과 노래들.



AMC2-019

지중해의 존 바에즈 - [마리아 파란두리]

가슴속의 고요한 열기를 담은 그리스인 영혼의 나직한 울림...그리스의 음악 유산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행한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 -추천곡 : 〈즐겁게 밤은 가는데〉, 〈달로 산책을 가요〉, 〈으스스한 해변에서〉



AMC2-004

러시아 로망스의 대명사 - [안나 게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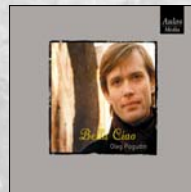
사랑과 이별, 인간의 영혼 그리고 대자연을 노래한 안나 게르만. 한국에 선보이는 그녀의 첫번째 앨범. -추천곡 : 정원에 꽃이 필 때, 나 홀로 길을 걷네 등...



AMC2-021

러시아의 비가(비가) - [올렉 뽀구진]

현재 왕성한 활동으로 러시아 최고의 로망스 가수로 인정 받고 있는 올렉 뽀구진은 삶, 사랑, 믿음을 노래하는 러시아 로망스의 계승자다. 음반 '러시아의 비가' 는 영혼을 울리는 서정적이고 따뜻한 18곡을 수록하고 있다.



AMC2-076

Bella Ciao - [올렉 뽀구진]

러시아의 영혼 올렉 뽀구진의 잊지 못할 모스크바 콘서트

깨끗하고 이지적이고 고독해 보이는 외모, 애잔한 은빛 미성으로 여성팬들의 애간장을 녹여온 러시아 최고의 가수 올렉 뽀구진이 2004년 7월 20일 모스크바 〈메리디안〉 콘서트 센터에서 공연했던 내용을 담은 음반이다. '빛나라, 빛나라, 나의 별이여', '가지 마오, 조금만 더 있어줘요' 등 머리끝이 서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러시아 노래들 외에, 이탈리아 민중가요 '벨라 차오(아름다운 안녕)', 유명한 샹송 '파리의 하늘 아래', '아니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같은 타국의 명곡들도 멋지게 불러준다. 흐르는 시간은 감동의 물결이다!

뉴 에이지 New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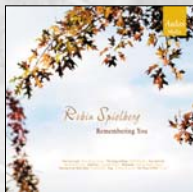
AMC2-069

Grandfather's Clock – [자넷 알렉산더]

뉴 에이지의 여신 자넷 알렉산더 베스트 히트 컬렉션

뉴 에이지의 거장, 데이비드 렌즈와 마이클 호페가 열렬히 추천, 완벽한 뉴 에이지 로망스!

한 폭의 수채화, 한 편의 서정시 같은 음악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시계를 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아련한 슬픔으로 노래한 타이틀 곡 〈할아버지 시계〉를 비롯해, 아련한 오보에 선율이 너무나 아름다운 〈함께 느끼는 것 (Common Ground)〉은 국내 포스코 CF에도 사용되어 이미 유명한 곡. 가슴 뭉클한 12가지 보석 선율들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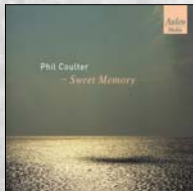


AMC2-071

Remembering You – [로빈 스피버그]

미국 뉴에이지의 여류시인 로빈 스피버그 베스트 컬렉션!!

인기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눈물이 펄 돌게 했던 'Remembering You'. 그 잔잔하고 애뜻한 서정의 주인공 로빈 스피버그가 자신의 주옥같은 명곡들만 엄선해 재발매한 슈퍼 베스트 컬렉션. 곡 하나하나 제목만 보고도 우리의 가슴은 순수와 낭만의 향기로 가득해진다. 아련한 꿈, 가슴 찡한 사랑의 아픔, 약속된 소망, 거룩한 찬가, 어머니의 사랑스런 눈길, 높이 솟구치는 명상의 멜로디,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정경,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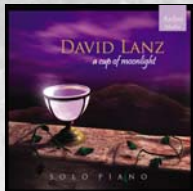


AMC2-075

Sweet Memory – [필 쿨터]

아일랜드 뉴 에이지 음악의 거목... 필 쿨터의 베스트 컬렉션

20여개의 플래티넘 레코드를 기록했던 아일랜드 최고의 뉴 에이지 음악가이며, 국민 아티스트인 필 쿨터의 베스트 컬렉션. 가슴을 녹이는 아름다운 명곡 Any Dream Will Do(어떤 꿈이라도 이뤄질 거야)를 시작으로 Morning Has Broken(아침이 열렸다), Take Me Home(집에 데려다 주오), Annie Laurie(애니 로리), The Sally Gardens(살리 가든) 등 꿈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잔잔한 선율들의 향연이다. 향수를 자아내는 애창곡과 민요들도 필 쿨터의 본능적인 선율감각으로 빚어져, 주옥같은 서정시로 다시 태어났다.



AMC2-078

David Lanz a cup of Moonlight – [데이비드 렌즈]

그래미상 수상 후보자로도 올랐던 미국 최고의 뉴 에이지 아티스트 데이비드 렌즈가 내놓은 회심의 앨범.

철학, 동정심, 감사, 애뜻한 정서의 편린들... '한잔의 달빛'이란 타이틀처럼 아홉 곡이 차분하고 고요하며 농밀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삶과 사랑,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와 우리 주위의 세상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 창작의 기쁨과 자신의 음악세계에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때때로 명상과 휴식이란 컨셉트를 가지고 만든 서정시 같은 단편들이다. 주위를 돌아보고 점점 더 깊이 많이 느끼며 사색하는 렌즈의 모습들이다.



AMC2-085

'슬픈 풍경' – [마이클 호페] 슈퍼 베스트 앨범

영국 뉴 에이지 음악의 거장 마이클 호페의 하이라이트!

그의 애잔한 명곡들은 이 한 장에 모두 들어있다. 특별 보너스 트랙으로 아메리카, 하와이의 장엄함 풍광을 담은 '장엄한 땅(This Majestic Land)'도 마련했다.



www.allegrofilms.com

The Christopher Nupen Films



Nupen Films A06CN D

20세기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나탄 밀스타인의 초상〉

- 위대한 거장 나탄 밀스타인의 음악세계 조망한 두 장의 DVD
- 말쑥한 외모로 들려주는 순수한 음의 세계
- 두 장의 DVD에 걸쳐 진행되는 핀커스 주커만과의 대화
- 눈부신 유희와 쾌속의 패시지워크 보여주는 크로이처 소나타
- 진정한 테크닉의 완성 보여준 바흐의 사콘
- 그가 장기로 하던 수많은 레퍼토리, 유익한 내용이 정말 많은 기록

디아파즈 황금상, 독일 음반 평론가상에 빛나는
밀스타인 최고의 영상물

20세기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의 한사람인 나탄 밀스타인의 예술 세계를 두 장의 DVD로 조감한 영상물이다. 밀스타인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도 가장 '러시아적인 이미지'가 적은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점이다. 많은 러시아 연주자들이 이른바 '진한 슬라브 정서'로 호소하는 경향을 보여줬지만, 밀스타인은 매우 독특한 자신만의 정서를 가지고 감정에 의한 연주를 펼치기보다는 지성으로 통제된 감정을 연주했다. 이지적인 이미지는 그의 용모에서부터 잘 드러나지만, 그의 바이올린 연주의 본성은 끊임없이 음악 자체에 대한 이해력 혹은 지성에 의해 단단히 통제받는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자신의 '파가니니아나'를 연주할 때, 밀스타인은 정말 눈부신 기교를 지닌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점을 느끼게 해준다. 그는 기교가 대단히 뛰어났고, 경력초반부터 비르투오소 기교로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기교를 앞세운 연주가보다는 매우 개성적인 해석가로 거듭 성숙해갔다.

그는 화염 같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음악은 언제나 엄격한 지성으로 통제되었다. 그의 외모처럼 말쑥하게 정제되어 있는 음. 바로 LP시절부터 음반 애호가들이 탄노이나 알텍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열광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밀스타인은 1716년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사용했는데, 그의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는 언제나 깨끗하고 순수했다. 그렇다보니 그의 연주스케일은 크지 않았다. 또 밀스타인은 강한 운지를 쓰는 연주가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손가락을 휩쓸 듯이 옮겨가는 방식으로 그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갔다. 밀스타인은 비브라토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그 폭이 넓지도 않다. 그런 방식의 연주가 지닌 장점은 인토네이션이 비길 데 없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의 연주는 복잡하거나 어지럽게 들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본 영상물에서 그가 한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핀커스 주커만과의 대화에서 주커만이 "선생님은 아주 단순하시고, 선생님이나 하시는 모든 일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군요?"라고 묻자 밀스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복잡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는 간결하고 순수하지만 그 순수함과 간결함이 오히려 진리에 이르는 최선책이라는 지론을 얘기한다. 멋진 말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DVWW-OPCARLOS

베르디: 돈 카를로스

전혀 커트하지 않은 형태로 처음 공연된 <돈 카를로스> 실황

베르디 오페라 중에 가장 감동적인 명작은 무엇인가? 전문가 그룹에서는 <돈 카를로스>를 꼽는 이가 많다. 워낙 등장인물이 많고 줄거리가 복잡한데도 알고 보면 하나같이 고뇌하는 인간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깊은 연민을 자아낸다. <돈 카를로스>는 공연 역사도 복잡하다. 5막의 불어 오페라로 파리에서 초연되었다가 4막의 이탈리아 판본으로 축약되었고 다시 5막의 이탈리아 판본이 나오기도 했다. 요즘 널리 사용되는 것은 4막의 이탈리아 판본이다. 그러나 작곡가의 초판본은 오히려 소외되어 있었다. 1867년 파리 초연 당시에 리허설 도중에 몇몇 장면을 커트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복원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2004년 11월 빈 슈타츠오페에서 완전한 초판본이 처음 상연되었다. 실험적인 오페라 연출가로 유명한 페터 콘비취니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스페인 왕자이며 논란 속의 인물인 돈 카를로스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지닌 청년으로 바라봄으로써 극적인 논리를 재구축했다. 콘비취니답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연출이지만 그다지 난해하지도

않은 편이다. 2008년 내한하여 예술의전당에서 바그너의 <파르지팔>을 지휘할 예정인 베르트랑 드 빌리가 지휘대에 섰고, 우리나라의 베이스 양희준(시몬 양)이 주요 배역인 종교재판관 역을 부른다.

[보충 자료]

○ <돈 카를로스>는 베르디로서는 보기 드문 프랑스 오페라다. 초연 자체가 불어로 이루어졌다. 물론 지금은 이탈리아어로 공연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초연 당시 작곡자가 원했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트렌드다. 그렇다면 베르디가 처음 작곡한 불어판으로, 또 생략된 것이 있었다면 그걸 다 살려본다는 시도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놀랍게도 완전한 오리지널은 무려 137년이나 기다려 2004년에야 빈 슈타츠 오페라 무대에 처음 올랐다.

○ 페터 콘비취니는 악취미를 포함한 전위적 연출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거장이지만 처음 공연되지 않은 판본을 다룬 것이라 나름대로 조심한 듯하다. 가장 참신한 의도는 돈 카를로스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왕자로 그렸다는 것이다. 역사상의 돈 카를로스는 외모도 불품없고 겨우 20년의 짧은 인생동안 신경쇠약에 시달렸으며 난폭한 행동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콘비취니의 시각은 왜곡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베르디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창조한 돈 카를로스의 캐릭터를 보면 콘비취니의 접근방식이 대단히 통찰력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DVWW-OPPIQUE

차이코프스키: 스페이드 퀸

세계 최고의 연극연출가 레프 도진이 바라본 차이코프스키의 명작 2006년 5월에 7시간 30분짜리 연극이 엘지아트센터에서 공연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연극계 최고수준의 연출가로 평가받는 레프 도진이 이끌고 온 상트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의 <형제자매들>이었다. 관객들은 누구나 그 수준에 놀라워했다. 레프 도진은 오페라 연출도 했다. 2005년 5월 파리 바스티유 극장에서 공연된 차이코프스키의 <스페이드 퀸>이 그것이다. 푸슈킨 원작의 <스페이드 퀸>은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도박에 대한 오페라다.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18세기 러시아 사회를 배경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내 게르만의 이야기를 담았다. 레프 도진은 이를 심리극으로 풀었다. 도박에 대한 욕구는 게르만의 내면적인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극의 키워드인 비밀의 카드 석 장은 인간을 위협하는 운명뿐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덧없는 열망을 상징한다. 지극히 상징적이고 단순화된 무대 위에서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압권이며 그 역할을 이 시대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 블라디미르 갈루친이 탁월하게 수행했다. 국내 오페라 무대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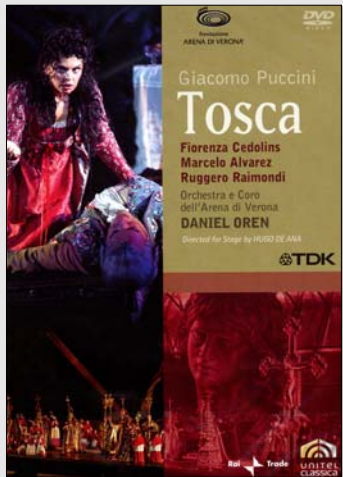
수차 출연했던 아르메니아 출신의 소프라노 하스미 파피안이 상대역인 리자를 불렀고 거장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가 지휘대에 섰다.

[보충 자료]

○ 차이코프스키는 특별히 알렉산드르 푸슈킨(1799~1837)을 좋아했다. 3대 걸작 오페라로 불리는 <예프게니 오네긴>, <마제파>, <스페이드 퀸>이 모두 푸슈킨 원작이다. 이중 <스페이드의 여왕>은 러시아 사회, 어쩌면 모든 유럽 사회가 안고 있었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그 배경에 깔고 있어서 보다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할 수 있다. 1890년 차이코프스키가 50세때 작곡된 후기작에 해당하며 오페라로는 끝에서 두 번째다.

○ 도박! 이것이야말로 이 오페라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드러낸다. 주식투자도, 복권도 일반화되기 이전이었던 당시 유럽에서는 도박중독으로 폐인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박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전략적인 사고를 즐긴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도박꾼을 은근히 미화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특히 러시아가 심했다. 푸슈킨과 차이코프스키는 그런 분위기에 일침을 가한 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유가 사회적 폐쇄성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도 이 오페라의 매력이다.

○ 레프 도진은 연극을 통해서 삶을 깊고 천천히 돌아본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의 연극에 있어서 숨이 길다는 것은 당연하다. 오페라 <스페이드 퀸>은 원래 여러 장면을 담고 있지만 도진은 최대한 한 무대를 길게 끌고 나가면서 연속적인 장면으로 보여준다. 그의 연극연출 기법이 오페라에 제대로 구현된 셈이다.



DVWW-OPTOV

푸치니: 토스카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펼쳐진 최고가수와 최고연출가의 압도적 무대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의 고대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여름 오페라 페스티벌은 2013년이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다. 그 전통과 명성에 걸맞게 베로나 페스티벌은 진화를 거듭하여 공연 수준에 있어서도 톱클래스에 올라섰다. 베로나 페스티벌의 지휘자로는 이스라엘 출신인 다니엘 오렌이 간판 스타다. 거대한 스케일과 명확한 완결성을 이끌어낸다. 연출가로는 아르헨티나 태생의 후고 데 아나의 명망이 높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스타일을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무대와 극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야외극장의 장점을 십분 살린다는 평가다. 2006년 페스티벌에서 이 두 거장이 힘을 합쳐 심금을 울리는 푸치니의 걸작 <토스카>를 멋지게 창조해냈다. 무대만 볼만한 것이 아니라 연주 수준에 있어서도 근래 주목할 만한 것이다. 당연히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이탈리아에서 현역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인정받고 있는 피오렌차 체돌린스(코스카), 파바로티와 도밍고의 뒤를 잇는 대형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즈(카바라도시), 이탈리아 베이스바리톤의 상징인 루제로 라이몬디(스카르피아)가 주요 배역을 맡아 1800년 6월의 어느 하루 동안 펼쳐지는 사랑과 질투, 음모와 살인의 드라마를 멋지게 그려냈다. 정치적 격동과 개인사가 얹힌 비극이 서사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를 잘 살린 역동적인 카메라워크도 일품이다.

[보충 자료]

- 토스카 역을 노래하는 피오렌차 체돌린스는 1996년 파바로티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활동 중인 스타다. <아이다>, <토스카>등 소프라노에게 상당히 무거운 배역에서 실력을 발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그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코로는 드물게 투명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연기력도 뛰어나다.
- 카바라도시 역을 노래하는 마르셀로 알바레즈는 아르헨티나 출신이며 지난 10년간 유럽 최정상급의 테너로 군림해왔다. 파바로티의 미성과 도밍고의 카리스마, 카레라스의 열창 스타일을 두루 갖춘 보기 드문 테너일 뿐 아니라 이탈리아 오페라는 물론 프랑스 레퍼토리에도 일가견이 있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대형 테너라고 하겠다.
- 루제로 라이몬디는 환갑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오페라 무대에서 가장 많이 찾는 베이스바리톤이다. 대단히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데, 특히 오페라의 전형적인 악역인 스카르피아 역으로 정평이 있어서 이미 여러 편의 음반과 영상물에 출연하고 있다.



DVWW-OPTRIT

푸치니: 3부작

파바로티의 고향 모데나에 떠오른 스타, 아마릴리 니차 가장 사랑스런 아리아로 알려진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결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다. 약간의 애교를 떨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막으면 강에 투신하겠다고 은근히 위협도 하고 있다. 이 오페라가 나오는 <자니 스키키>는 독립적 오페라이긴 하지만 푸치니가 하룻밤에 공연되도록 작곡한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다. 그런데 이 삼부작은 실제로 한꺼번에 공연하기 힘들다. <외투>에는 베르즈모 오페라의 거친 치정과 살인이 벌어지고, <수녀 안젤리카>는 인간적인 고뇌로 절망에 다다른 수녀를 다루지만 지극히 종교적이며, <자니 스키키>는 푸치니 유일의 희가극이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태어나고 최근 생을 마감하기도 한 이탈리아의 소도시 모데나의 작은 오페라 극장이 2007년 2월에 <삼부작>을 한꺼번에 무대에 올렸다. 게다가 밀라노 출신의 소프라노 아마릴리 니차가 세 작품 모두의 주역을 노래하여 화제를 낳았다. 니차는 평소애 리리코 스피토의 다소 무거운 레퍼토리를 소화하는 미모의 유망 소프라노인데, <수녀 안젤리카>의 서정적 리리코와 <자니 스키키>의 보다 가벼운 리리코까지 매혹적으로 소화해냈다. 좋은 상태의 영상물을 만나기 힘들었던 <삼부작>의 결정판이나 다름없다.

[보충 자료]

- <외투>는 베르즈모의 색채가 진한 작품이다. 나이 많은 남편이자 거룻배 선장인? 미켈레(바리톤)의 젊은 아내 조르제타(소프라노)는 젊은 하역부 루이지(테너)와 정을 통한다. 자신을 멀리하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미켈레는 결국 루이지가 연적임을 알아채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아내를 시체 위로 밀어 넣으며 분노를 폭발시킨다.
- <수녀 안젤리카>의 주인공은 7년 전에 사생아를 낳았다가 회개하러 수녀원에 왔다. 어느날 백모가 찾아와 동생이 결혼하게 되었으니 재산을 양도하라고 한다. 세상과 격리되어 아이의 안부도 모르던 안젤리카는 소식을 물었다가 2년 전에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슬픔에 빠진 안젤리카는 아이를 만나고 싶은 환상에 빠져들어 신비스런 황홀감 속에서 독을 마시고 죽어간다.
- <자니 스키키>는 희가극이다. 피렌체의 부자 부오조 도나티가 죽자 친척들이 몰려든다. 모두 유산을 노린 것이다. 그런데 망자의 유언은 유산을 모두 수도원에 넘긴다는 것이다. 친척들은 깜짝 놀라 꾀많은 자니 스키키가 부오조 도나티로 위장해 공중인 앞에서 유언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다. 물론 자니 스키키는 자기에 게 유리하도록 멋대로 유언을 한다. 친척들은 화가 나지만 이미 죄를 공모한 것이 되어 어찌지 못한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니 스키키의 딸 라우레타가 부르는 노래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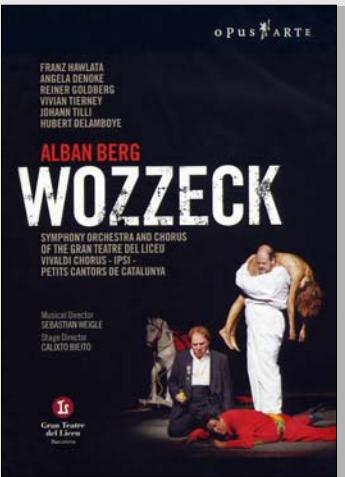
OpusArte 0983D (2DVD Set)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델 모나코가 열창하던 베리즈모의 오페라를 그 아들이 연출하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는 세기말의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가를 주름잡은 베리즈모 오페라, 즉 치정으로 얽힌 암울한 상황을 그려낸 사실주의 오페라의 출발점이자 대표작들이다. 특히 두 작품은 직선적인 성격의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서 테너 주인공은 가느다란 미성이 아니라 두툼하고 격정적인 소리로 인간의 본성을 노래해야 더 어울린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투리두와 <팔리아치>의 카니오를 가장 잘 불렀던 이가 드라마틱 테너의 상징적 존재인 마리오 델 모나코였다. 그의 아들이며 오페라 연출계의 거장인 잔카를로 델 모나코가 부친의 장기를 연출했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회칠한 흰색 건물에 대부분인 시칠리아 정경처럼 모노톤으로 단순화한 무대와 의상이 돋보인다. <팔리아치>는 연출자의 본래 특징대로 정교한 무대를 구성했다. 투리두 역은 오래 전부터 파바로티의 후계자로 지목받았던 빈센초 라 스콜라가, 카니오 역은 이 시대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인 블라디미르 갈루친이 열창한다. 2007년 레알 마드리드 극장 실황이며 특히 갈루친의 목직한 음성은 델 모나코와는 또 다른 매력이다.

[보충 자료]

- 이탈리아, 특히 가난한 지역인 남부 민중들의 거친 삶과 원초적인 사랑을 소재로 삼은 것이 베리즈모 오페라다. 1890년대와 20세기 초에 봄을 이루었는데 이중 최초에 속하는 작품이자 내용이나 음악에 있어서도 가장 전형적인 걸작이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다. 두 오페라는 하룻밤에 공연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만만치 않은 작품들이라 요즘은 따로 연주되는 경우가 더 많다.
- 오페라 연출가 잔카를로 델 모나코(1943~)는 전설적인 드라마틱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1915~1983)의 아들이다. 부친이 생존해 있을 때 이미 연출가로서 명성을 획득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오페라 연출을 담당하는 세계적인 연출가의 한 사람이다. 전통적인 스타일부터 현대적인 스타일을 관통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무대 장치와 의상에도 일가견이 있다.
- 빈센초 라 스콜라(1958~)는 파바로티의 뒤를 잇는 리릭 테너로 명성을 얻었고 현재 리리코 스페인 레퍼토리에 더 관심을 보이는 이탈리아의 간판급 테너다. 블라디미르 갈루친(1957~)은 러시아 출신이며 돌처럼 단단하고 목직한 음색으로 현역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로 불린다. 라 스콜라의 상대역으로는 메조소프라노와 소프라노를 다 소화하는 비올레타 우르마나(산투차)가, 갈루친의 상대역으로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리릭 소프라노 마리아 바요(네다)가 나섰다.



OpusArte 0985D (2DVD Set)

알반 베르크: 보체크

오페라 연출계의 도사자, 칼릭스토 비에이토 연출의 <보체크>
알반 베르크의 <보체크>는 1925년 베를린에서 초연된 현대오페라다. 스승인 쇤베르크의 조성 없는 음악을 오페라에 구현했는데 그 실험이 오페라 내용과 기막히게 어울려 20세기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남았다. 원작은 24세에 요절한 19세기 독일 작가 게오르크 뷔히너의 <보이체크>다. 1824년 한 남자가 공개 처형된 사건에서 착안하여 억압받는 인간상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보이체크>는 작가의 사후 40년이 지나서야 출판되었는데 그때 제목이 <보체크>로 잘못 인쇄되었다. 베르크의 오페라 제목도 이것을 따랐다
본 영상물은 2006년 1월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대극장 실황이다. 연출자가 칼릭스토 비에이토란 점에 주목하라. 그는 역겨울 정도로 잔혹한 표현과 육체를 고깃덩어리처럼 취급하는 섹슈얼리티로 비난받으면서도 고전적 해석과는 전혀 다른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찬사를 함께 받아왔다. 원작의 19세기 독일 사회는 근대적인 공장으로, 군인은 공장근로자로 재설정되었으며 예상대로 누드와 폭력이 난무한다. 베르크가 그리고자 한 것은 하층민의 비참한 모습이지 결코 세상의 착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 점을 부각시킨 해석이다.

[보충 자료]

- <보이체크>는 실화에서 취재한 것이다. 크리스티안 보이체크란 남자가 애인을 살해한 죄로 체포되었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정신착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지만 이 남자는 그럴 틈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작가 뷔히너는 보이체크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폭력에서 야기되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것을 하층민의 희망 없고 비참한 생활과 결부시켜 탁월하게 그려냈다.
- 오스트리아 작곡가 알반 베르크(1885~1935)는 무조음악의 창시자라는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제자이자 동료였으며 두 편의 오페라, <보체크>와 <룰루>로 20세기 음악계에 기여했다. 이중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보체크>다. 무조성 음악이지만 지나치게 난해할 것도 없고, 뷔히너 극의 상징적이고 암울한 내용을 그려내기에 적합한 분위기다. 오케스트라의 짜임새도 분석할수록 탁월한 작품이다.
- 스페인의 오페라 연출가 칼릭스토 비에이토(1963~)는 실험적인 연출이 일반화된 유럽에서도 마르틴 쿠제이와 함께 가장 급진적인 존재로 꼽힌다. 아름다운 감동이 아니라 몸서리치는 충격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그의 신조다. <보체크>는 이미 발매된 <돈 조반니>의 충격적 영상에 이은 최신작이다.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를 한 곳에 모았다!

THE BALLETS TCHAIKOVSKY
Swan Lake / The Nutcracker / The Sleeping 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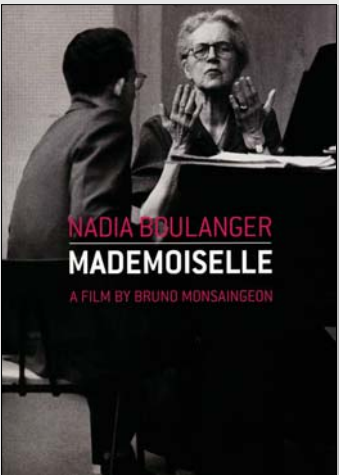
[DVD 1] 백조의 호수 (OA0866D)
왕립스웨덴 발레단의 화려한 무대를 통해 만나게 되는 로맨틱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 안무는 이 작품에 있어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페티파/이바노프 콤비의 것이지만, 영국 발레의 원로 피터 라이트 경이 세부를 다듬었다.

[DVD 2] 호두까기 인형 (OA0828D)
모든 발레들 중 가장 축제적이면서도 가장 자주 연주되는 호두까기 인형. 이 발레 속에서 호프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숨을 멈추게 하는 황홀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펼쳐진다. 로열발레단의 감독 안소니 도웰경이 직접 드로셀마이어 역할을 해냈고,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다.

[DVD 3] 잠자는 숲 속의 미녀 (OA0904 - 2 DVD SET)
네델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발레단인 헤트 국립발레(네델란드 국립발레)의 2003년 공연실황. 고전 낭만주의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순수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차이코프스키 발레의 불멸의 명작. 정성급 안무가 페티파와 라이트의 공동작으로 필립 프라우즈의 매혹적인 바로크 세트와 의상, 러시아 황제차르의 궁정 스케일에 걸 맞는 화면 가득 찬 웅장함이 압권이다.

IDEALE AUDIENCE
INTERNATIONAL
www.ideale-audience.com

Ideale Audience International



DVD5DM41

20세기 음악교육계의 거목
나디아 불랑제의 DVD <마드무아젤>

- 프랑스 저명한 여성 음악교육가 나디아 불랑제 90세 기념 영상물
- 20세기 음악교육계의 거목.
디누 리파티, 클리포드 커즌, 존 엘리엇 가드너의 스승
- 글렌 굴드 영상물로 유명한 브루노 몽생종 필름
- 흑백 필름이지만 불랑제 여사의 빛나는 음악철학으로 눈부시다.
- 보너스 트랙:
모차르트: 교향곡 38번<프라하> / 이고르 마르케비치 지휘

전설 그 이상의 존재 나디아 불랑제, 프랑스의 저명한 여성 작곡가, 음악교육자이며 음악학자다. 우리 애호가에게는 디누 리파티나 클리포드 커즌, 존 엘리엇 가드너의 스승으로 잘 기억되어 있기도 하다. 젊은 시절 포레나 비도르한테 작곡을 배웠고 로마 대상까지 받은 촉망받는 작곡가였으나 작곡가로서의 길을 가지 않고 곧 지휘자로 전향했다. 전쟁 중에 몬테베르디의 음악에 집중해 르네상스 위대한 작곡가의 재발견에 중대한 공헌을 한 사람도 불랑제다. 이 사실과 관련하면 첫 음반을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로 선택했던 존 엘리엇 가드너가 그녀의 제자였다는 점까지 슬며시 이해된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가 가장 왕성한 의욕으로 활동했고, 또 실제로 가장 뚜렷한 영향력을 보여줬던 것은 역시 음악교육자로서의 역할이었다. 20세기의 가장 빛나는 여성 음악 교육자로 우뚝 서있는 나디아 불랑제, 그녀는 타고난 선생이었다. 본 필름에서, 지휘자 이고르 마르케비치는 젊은 시절 불랑제 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남자 교수인가 싶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녀는 외모부터가 전형적인 선생이다. 1920년 에콜 노르말에서 화성학을 가르친 것을 시작으로, 불랑제는 퐁텐블로 음악원에서 오랜 시간 교편을 잡았고(1950년에는 그 음악원의 원장이 되었다), 1946년부터는 프랑스 파리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물론 미국경력에서는 래드클리프 칼리지나 줄리아드 학교의 교수로서도 기억되어야 한다. 피아니스트 외에도 1920년대와 1930년대를 통해 그녀가 길러낸 작곡가 가운데는, 애런 코플랜드, 장 프랑세, 마르케비치, 피스톤 같은 대가들이 있다. 불랑제는 장수했는데(1887년에 태어나 1979년 92세를 일기로 세상으로 떠났다), 생명이 끝나는 거의 마지막 해까지 가르치는 일을 했으니, 그녀가 길러낸 제자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DVD내지에 보면 스트라빈스키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불랑제는 당대 작곡가로 포레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아주 높이 평가했는데, 특히 친구였던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극찬했던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스트라빈스키의 실내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인 '덤바턴 오크스(Dumbarton Oaks)'를 위한 협주곡'을, 1938년 그 대저택 부근 워싱턴에서 초연했던 인물도 바로 불랑제였다. 선생으로서 음악사의 인물로 20세기에 그녀가 갖고 있던 위상은 전설, 아니 그 이상이다.

엄마와 함께 하는
어린이 클래식 음악 백과 10CDs



10CD Set

- 우리 아이 감성지수 향상을 위한 최고의 아이템
- 바로크시대부터 근대까지 클래식 핵심명곡 엄선
- 정상급 아티스트의 명연주 음원만으로 구성
- 각 시대별 예술사조와 음악의 특징,
그리고 모든 수록곡에 대한 상세한 해설
- 10장의 CD를 2장 가격에 드립니다



* 엄마와 함께듣는 어린이 클래식 음악 백과 수록내용 *

- CD1** • 바로크 시대의 음악 •
파헬렐: 카논 •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에서 봄 1악장 • 바흐: 에누는 나의 기쁨 • 헨델: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 헨델: 세르세 중에서 라르고 외..
- CD2** •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 •
글루크: 장령들의 춤 • 하이든: 교향곡 94번 '놀람' 중에서 2악장 •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중에서 1악장 •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직 중에서 알레그로
- CD3** •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 •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중에서 2악장 • 보케리니: 미뉴에트 •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중에서 1악장 •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중에서 4악장 환희의 송가 외
- CD4** •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 •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중에서 1악장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중에서 3악장 • 베버: 무도회의 권유 외
- CD5** •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 •
로시니: 할리암 텔 서곡 • 슈베르트: 자장가 •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중에서 2악장 • 글린카: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 1악장 외
- CD6** •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 •
멘델스존: 핑갈의 동굴 서곡 • 멘델스존: 무언가 중에서 봄노래 • 슈만: 어린이 정경 중에서 트로이메라(꽃) • 리스트: 사랑의 꿈 3번 • 쇼팽: 빗방울 전주곡 외
- CD7** •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 •
구노: 아메타리아 • 주페: 시인과 농부 서곡 • 프랑크: 천사의 양식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에서 물다우 외
- CD8** •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 •
브람스: 헝가리 무곡 5번 • 생상스: 동물들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 비제: 아틀의 여인 모음곡 중에서 미뉴에트 • 비제: 카르멘 모음곡 중에서 간주곡 외
- CD9** •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 •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중에서 2악장 •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중에서 정경 • 드보르자크: 유모레스크 • 마스네: 타이스 중에서 명상곡 외
- CD10** • 근대 음악 •
그리그: 페르 겐트 모음곡 중에서 슬베이지의 노래 • 립스키 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 시라시테: 치고이네르바이젠 • 이바노비치: 다뉴브강의 진물결 • 엘가: 사랑의 인사 외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5,000개 음반 / 21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의 주인공
수사네 룬덴 베스트 컬렉션

The very best of

SUSANNE LUNDENG 수사네 룬덴

Jeg ser deg søte lam

|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 |



국내에서만 1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던 노르웨이 바이올린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수사네 룬덴의 베스트 컬렉션 <The very best of Susanne Lundeng>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 <여기 모인 옛 친구들>, <뢰딩겐의 결혼행진곡>, <이상한 여행>...

피오르드 협곡, 눈이 시리도록 질푸른 바다와
백야의 나라, 노르웨이의 너무도 아름답고 신비스런 연주곡과 노래들.



표지사진

재클린 듀프레(첼리스트)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7년 11월호

통권 제 28호 발행 : 2007년 10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